



역사 오명 이기고 천년 버틴 포석정 이제는 부정적 그늘 걷어내야 할 때

1천 년 전, 마치 전복을 뒤집어 놓은 듯한 타원형으로 물이 돌도록 수로를 만든 유적이 경주 포석정(鮑石亭)이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신라 왕실에서 연회나 제례를 올렸던 용도로 추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물길을 임의로 보수하면서 원형을 잃었다. 원래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토해내는 돌거북이 있고, 이 물이 돌로 만든 구불구불한 물길을 따라 흘러 되돌아오는 구조였다. 지금 남아있는 물길의 전체 길이는 22m에 이르고, 물길의 깊이는 20cm 정도, 입수구와 배수구의 상하 높이 차이는 5.9cm 정도이다. 1963년 사적 1호로 지정됐다.

동아시아 유상곡수(流觴曲水, 이하 곡수)의 원조는 중국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봉건왕조가 무너지기 전까지 지속됐다. 곡수는 황제, 왕, 귀족, 문사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고상한 유희였다. 고대 곡수는 춘계와 추계로 나뉘고, 이날 손발을 씻고 신에게 계사(楸事)를 지냈다. 춘계는 3월 상순의 첫 뱀 날인 상사(上巳)에 열렸다. 후대 좋은 곳에서 시를 짓고 즐기는 모임이 됐다. 참가자들은 곡수 주위에 둘러앉아 술잔이 떠내려오는 짧은 시간에 시를 지어야 했고 못 짓는 사람은 벌주를 마셔야 했다. 이런 곡수 모임의 흔적은 중국 베이징의 고궁에도 있고 일본 헤이조궁(平城宮) 유적에도 있으며 조선의 왕궁인 창덕궁 소요암에도 남아있다.

역사상 최초의 곡수 모임 주최자는 왕희지로 353년 3월3일 절강성 소흥에 있는 난정(蘭亭)에서 그를 포함한 42명의 문사가 시회를 열었다. 이날 난정에서 시를 두 수 지은이가 11명, 한 수는 15명, 시를 짓지 못한 이가 16명으로 이들은 벌주 석 잔을 마셨고, 왕희지는 이 시를 모은 책의 서문을 썼다. 이 서문이 서예 사상 천하제일 행서로 칭하는 '난정서(蘭亭序)' 혹은 '난정집서(蘭亭集序)'이다. 그 후 중국에 여러 개의 곡수가 건축되었고, 지붕을 얹어 그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자(亭)란 이름을 얻었다. 현재 소흥의 난정에 가면 왕희지의 곡수 모임 흔적만 있고 곡수 주변에 자연석 돌로 앉는 자리만 배치되어 있어 원조가 무색한 실정이다.

일본의 곡수는 정원조경 일부로 중국보다 규모는 작고 정자는 없다. 인위적 조경으로 한국처럼 대리석 조각은 없고 수로를 포장하기 위해 편석을 바닥에 깔아 놓았다. 일본 문헌에는 485년, 726년 등 곡수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한국의 곡수 문화는 일본보다 빠른 가능성이 있다. 역사상 전하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서기 879년 신라 헌강왕이 포석정에서 곡수연에 행차했다는 기록이 있다. 안타깝게도 위의 두 사서에서 927년 신라 55대 경애왕(景哀王)이 곡수연을 즐기던 차에 후백제의 견훤에게 살해된 사건으로 인해 포석정이 고대 마지막 수로가 되고 말았다.

◆오명을 안고 멈춘 포석정지

우리가 포석정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원인은 역사에서 두어 번 포럼과 편책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첫째, 고려시대 1145년(인종 23년) 왕명에 의해 김부식과 그 외 10명이 편찬한 관찬 역사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 12에 "견훤이 (경애왕 4년, 927) 겨울 11월에 갑자기 왕경(경주)에 침입했다. 왕은 비빈, 종실 친척들과 포석정에 가서 잔치를 열고 노느라 적병이 이르는 것도 깨닫지 못했고,··· (견훤이) 꺾박하여 왕을 자살하게 하고"라는 기록이 있고, 고려 1281년(충렬왕 7년)에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 권2 김부대왕 조에는 "견훤이 겨울 11월에 왕경으로 쳐들어왔다. 왕은 비빈·종척과 포석정에서 잔치를 열고 즐겁게 놀고 있었기 때문에 적병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다가 창졸간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견훤이) 왕을 억지로 자결해 죽게 하고 왕비를 옥보였으며, 부하들을 놓아 왕의 빈첩들을 모두 옥보였다"라는 기록으로 인해 신라가 패망한 역사적 오명을 경애왕과 포석정이 뒤집어쓴 것이다.

13부 스토리로 만나는

경북의 문화유산

〈16〉 경주 포석정지

전복 뒤집어 놓은 듯한 타원형 물 돌도록 수로 만든 유적 눈길
신라 왕실 연회·제례 용도 추정
물길 임의 보수 탓 원형 유실돼
현재 남아있는 전체 길이 22m
1963년 '사적 1호'로 지정 눈길

후백제 견훤, 927년 포석정 침입
잔치 열었던 '신라 55대 경애왕'
곡수연을 즐기던 차에 살해돼
부하 놓아 왕 빈첩 모두 옥보여
그로 인해 고대 마지막 수로로
패망 원인, 포석정 놀이로 각인

역사는 모두 후대 승자의 처지에서 서술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각색과 포럼이 가해질 수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모두 고려시대 편찬된 것으로 삼국사기는 관찬으로 여기에 선택적으로 수록되면 영원히 낙인이 찍혀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일례로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주연을 베풀었다는 시기가 음력 11월이니 양력 1월 엄동설한에 야외에서 연회를 가졌다는 것이고, 당시 견훤과 왕건이 패권을 다툰 때 견훤이 9월 신라의 영전에 침범해 경주를 목전에 두고 있어 국가 존망의 시기에 경애왕이 한가하게 포석정에서 유희를 즐겼다는 게 의심된다. 또한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근거로 삼아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관점만 다르기에 일연스님이 불교를 옹호하는 처지에서 서술한 것이다. 경순왕을 왕으로 호칭하지 않고 김부로 부른 점과 김부대왕 조에 다른 왕과 달리 경애왕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올린 것 등이 그렇고, 경애왕에 관한 기록은 불교 스님들의 모임인 백고좌법회만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혹여 멸망한 왕조에 낙인 찍기가 행해진 건 아닌지 의심이 들만한 사항이다. 고려 처지에서 포석정과 낙화암은 좋은 구실이 되었을 수도 있다.

둘째, 조선왕조실록에서 세종은(세종 15년, 1433년 10월) "옛날 신라가 패하고, 백제가 낙화암에서 멸망한 것이 술 때문이 아닌가"라는 일갈과 술을 금하는 계주교서(戒酒敎書)를 내린다. 술이 망국의 점점임을 밝힌 이글의 장본인은 신라의 경애왕과 백제의 의자왕이다. 의자왕은 백제 최후의 왕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신라의 최후 왕은 경순왕인데도 경애왕이 사서의 포석정 기록 때문인지 몰라도 망국의 왕이란 사슬에 묶인 것이다.

셋째, 일제강점기 조선 패망의 원인을 사색당파로, 신라 망국의 원인을 경애왕의 포석정 놀이로 각인시켰기 때문에 포석정은 지금까지 역사적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석정의 미래 조망

현재 포석정지 바로 옆 포석정지 방문자센터에 포석정 모형이 건설돼 있어 당시의 감흥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동아시아 상류계층과 선비들의 고상한 유희 문화인 곡수 모임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원래 왕희지의 곡수도 제계하는 행사였다. 최근 학계에서 포석정의 부정적인 면을 일소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포석정은 연회를 행한 장소보다는 의식을 행한 곳이라는 설과 국가 안위를 위해 제례나 행사를 거행한 설 등이 있다.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유희으로 죽은 게 아니라 전시에 국가 안위를 위해 하늘에 기도를 드리다 변을 당했을 수도 있다. '화랑세기'에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 1999년 포석정 주변을 발굴 조사할 때 '포석(砲石)'이라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포석사(砲石祠)라는 기록과 발굴조사에서 이곳에 큰 규모의 건물이 있었고,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출토되면서 포석정이 연회만 열던 곳이 아니라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제사 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포석정의 부정적 그늘을 걷어내고 모형전시 외에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곳곳에 모형을 만들어 술 대신 차(茶) 등 음료로 곡수 모임을 응용한 다양한 고려가 있었으면 한다. 정태수 한국서에서연구소장



112 포석정지는 경주시 배동에 있는 신라의 별궁이 있던 자리로, 대한민국 사적 제1호이다. 건물은 없어지고 석조구조물만 남아 있다. 사진은 포석정지에 남아있는 화강석 구조물의 모습. 안쪽 12개, 바깥쪽 24개의 돌로 조립됐고, 물이 흘러드는 입수구의 양쪽은 돌 6개, 출수구 꼬리 부분은 4개의 돌로 만들어졌다. 수로의 너비는 31cm, 깊이는 21~23cm, 길이는 대략 22m쯤 된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